『삼국유사』의 언술방식

姜 明 慧
(서경대학교 강사)

Ⅰ. 서 언
Ⅱ. 『삼국유사』의 문학적 언술방식
1. 비유적 방식
2. 운문 방식
Ⅲ. 결 언

www.kci.go.kr

<국문 요약>

『삼국유사』는 국가와 종교에 관한 사실이나 사건을 편찬해 놓은 것으로서, 일연은 당대에 전해지던 설화나 신이한 이야기담 속에 내재된 진실과 실제적 사실을 간파했기에 이를 역사로 인지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연의 지성 및 인지는 삼국유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 및 기표로 작용하게 된다. 이 잣대 및 기표는 바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작성하는 언표로서 모든 주제를 여기에 준거한 언술방식에 의해 기록했던 것이다. 이 언술방식은 바로 “문학적 문체, 문학적 글쓰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의 문학적 글쓰기는 우선, 당대의 설화를 역사적 사료로 보았다는 점과 또한 역으로 역사적 사료를 알레고리나 비유 등을 사용해서 편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학적 글쓰기는, 모든 기록문 후에는 문학적 장르의 하나인 韻文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문을 제시한 것은 운문이 지니는 가치나 효용성 등을 인지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연이 자신이 지은 찬시를 부연시킨 것은 단순히 그의 분출하는 서정적인 자아의 표출이나, 시심이나, 종교심의 발로만은 아니며, 그 이상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서사담이나 사건, 異蹟 등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강조시키고 널리 전파시키고자 하는데, 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문학 효용성)이 상당히 효과적임을 인식해서 이를 포교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연의 문학적 마인드는 일연 개인만의 독특한 취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한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누락시켰지만 당대 널리 알려진 신이한 이야기(糖衣를 입은)가 역사적 사료임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 편찬해 놓거나, 우리나라 역사상 반드시 필요한 史料를 간접 화법이나 문학적 당의를 입혀서 제시해 놓은 엄밀한 역사서’라고 결론 내렸다.

www.kci.go.kr

주제어: 문학적 글쓰기, 언술방식, 운문, 史料, 문화적 표현방식(코드).

Ⅰ. 서 언

일연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한 직후 『삼국유사』를 찬술했다. 이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국유사』는 史書인 『삼국사기』를 염두에 두고 편찬한 일종의 史書이며, 『삼국사기』에서 누락한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정보가 상당량 내재해 있는 寶庫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김부식은 사대주의적 사관에 젖어 있었으며 뿌리 깊은 유학자여서 이전부터 내려오는 『檀君古記』와 같은 우리의 고대사가 기록된 확인 불가능한 문서, 구전되는 이야기 등은 모두 누락한 채 작성했기에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이나 부여와 같은 우리의 고대사가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삼국유사』에는 우리 고대 국가의 創建 사실, 각 나라의 始祖 이야기, 종교의 유입, 전파, 神僧의 이야기 등, 國家와 宗敎에 관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正史로서의 『삼국유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학계의 중론이다.

『삼국유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어떤 성격 및 특성을 지녔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학들의 연구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연구특징을 보면 특이하게도 국문학자들은 삼국유사를 文學의 寶庫로 보면서 문학적 특징, 즉 설화나 향가, 찬시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고, 佛敎에 관심이 많거나 불교 관련 연구자들은 삼국유사를 불교적 사료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했으며, 民俗學者들은 삼국유사 텍스트에서 민속적 사료를 고구해서 밝혔고, 史學者들은 역사적 사료로서 삼국유사를 원전 텍스트로 보고 이를 연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政治學 관련 학자들은 삼국유사를 정치적 사료로 보고 연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 한두개를 복합해서 함께 고찰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1)]

www.kci.go.kr

이렇듯이 다양한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奇異하고도 神異한 내용을 다룬 說話가『삼국유사』텍스트에 상당량 등장하기 때문이며, 이 '설화적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文學과 歷史의 관계는 언술자체가 애당초 서로 다른 코드에 속하며, 서로 다른 언어코드로서 상반되는 기술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묵시적 원칙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장르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한다거나 동일한 시각으로 공분모항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를 범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역사는 교훈이나 사실, 지향하는 점이 애당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도달점이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도 이를 표출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코드로서, 장르자체나 기술방식, 언술체계가 거의 상반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이 단순명쾌한 사실을 당대 최고 지성인이면서 높은 경지를 지녔던 禪師 일연이 진정으로 몰랐을 것이라고는 상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념이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삼국유사 텍스트를 통해 규명

1) 안병희, 김철준, 정구복, 정규복, 이강래 등은 이 책을 역사서로, 김영태, 김상현, 김태영, 고익보, 허흥식, 홍윤식, 최병헌, 진홍섭 등은 이 책은 불교사 내지는 불교문화사적 성격이 강한 저서로, 이어령, 황패강, 조동일 등의 문학연구자들은 문학의 보고로 보고 있으며,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정치사상사의 내용이 주축인 것으로(김석근, 안외순)보고 있다. 특히 黃浿江은『삼국유사』가 '역사책이냐' '이야기책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책은 '찬술의 자세, 서술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설화 문학서 내지 설화 집성을 목적한 찬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구자인 이기백도 이를 사학사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김열규, 김택규, 박진태, 송재용 등은『삼국유사』를 역사적 민족지나 민속지 내지는 민속사로 보기도 한다. 또한 남권희, 유부현, 김상현, 하정용 등에 의해『삼국유사』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김상현, 유택일, 이기백, 이은식, 소상식 등에 의해『삼국유사』의 원전 성격과 관련된 편찬과 간행의 문제, 즉 편찬의 시점, 편찬자의 정체와 그 수효, 간행 시기, 일연 생전의 원고의 완성 여부 등,『삼국유사』전반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강명혜,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온지논총 25집, 사단법인 온지학회, 2010, P. 134) 재인용.

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연은『삼국유사』서문에서 자신이 이 글을 찬술하고 있는 목적 및 의도를 밝히고 있었는데, '서문'에 의하면『삼국유사』를 찬술하는 목적은 바로 "괴력난신"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삼국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종교(불교)'의 이입과정 및 전파,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었으며,『삼국사기』가 연대를 제시하면서 체계있고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사료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삼국유사』는 인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괴력난신"적 내용이란 바로 세간에서 지칭하는 '설화적 내용이나 서사담'에 해당되었고, 일연이 언급한 '괴력난신'은 '삼국유사' 텍스트에서는 '奇異'로 표현되고 있었다. 실은 '괴력난신'은 타인들이 보내는 비판적 語句일 뿐이며, '신이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일연의 본 의도이며 지향하는 바였다. 따라서『삼국사기』에 실리지 못하고 누락된 '괴력난신적 이야기'를 수록하는 것, 국가 및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좀 더 '생생하게 입체화해서 실감있게 수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일연이『삼국유사』를 작성한 의도 및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일관된 사관은 <紀異>편은 물론이고 <興法> 이하 <孝善>편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서문에서 언급한 '신이한 내용'은 전『삼국유사』를 관통하는 일 주제이며, 일연의 주된 의도였으며,『삼국유사』라고 명명한 이유가 된다.

신이하고도 기이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 설화란 무엇인가?

인류역사상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당시의 여러 구비물이 오랫동안 회자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전달, 전파하도록 특별한 장치, 즉 비유나 상징을 이용해서 신이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이야기담으로 포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의 문학적 용어를 빌자면 결국 糖衣가 입혀진 것이다. 이렇듯이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문학적 당의가 입혀져서 신이하고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담으로 변신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구에 회자되면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오다가 비로소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文學糖衣는 口碑物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www.kci.go.kr

렇게 본다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나 비논리적인 인물, 사건 등으로 구성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어떤 중요한 교훈과 가치를 담고 대대로 전달되는 진실한 이야기담이다. 일연은 이렇듯이 황당한 이야기 속에 내재한 진실과 사실, 교훈 등을 간파하고 인정하고 납득했기에 史料로서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구조는 이러한 방식과 사관을 가지고 이해할 때 보다 사실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었다.[2)]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이어서, 『삼국유사』의 내용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기술되고 있는지 언술방식 특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일연의 편찬 전략이나 방식 및 의도가 『삼국유사』의 주제를 밝히고자 하는 주제적 접근에 해당된다면, 『삼국유사』의 언술방식에 대한 연구는 형식적 접근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장르나 문체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삼국유사』의 문학적 언술방식

『삼국유사』는 사실 '국가'와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가와 관련된 내용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나 삼국의 始原 및 始祖들과 관련된 설화나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나 사실이 해당된다면, '종교'적 내용에는 불교가 유래된 이야기, 절이 창간되거나 불법이 전파되는 과정, 고승이나 선승, 괴승의 위력, 부처님의 영험함 등이 해당된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연이 생존했을 때 당시 퍼져있던 이야기담

2) 강명혜, "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온지논총 25집(사단법인 온지학회, 2010), PP. 132-158Passim.
이 부분은 전편(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에 이은 후편의 논의 전개를 위해 꼭 필요한 본인의 논의 부분을 재인용한 것임.

www.kci.go.kr

이나 설화, 신이한 내용들로 상당량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연은 당대에 전해지던 설화나 신이한 이야기담 속에 내재된 진실과 실제적 사실을 간파했기에 이를 역사로 인지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일연의 지성 및 인지는 삼국유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 및 기표로 작용하게 된다. 이 잣대 및 기표는 바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작성하는 언표로서 모든 주제를 여기에 준거한 언술방식에 의해 기록했던 것이다. 이 언술방식은 바로 "문학적 문체, 문학적 글쓰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넓게 지칭하면 "문학 당의(모든 문학적 장치)"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언술방식의 규칙'은 어떤 주제든지 문학적 글쓰기, 문학적 문체,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유적 방식

일연의 편찬의도나 글쓰기 전략을 살펴보면 일연은 당시에 유행하거나 존재하던 다양한 '설화'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이를 史料로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연이 '서문'에서 『삼국유사』작성 의지나 목적 및 취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고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일연은 설화 속에 내재한 실제적 의미 및 그 가치를 알고 이를 수록, 편찬했을 뿐더러 다른 사실이나 사건을 새로 저술할 때조차도 문학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문학적 언술방식의 효용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언술방식은 문학적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사고의 지평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적 언술방식과 역사적 사료를 기술하는 언술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역사적 사료를 기술하는 방식과 문학적 언술방식은 근본적으로 차별

www.kci.go.kr

화된다. 즉 역사를 기술하는 언술방식은 논리적인 체계와 객관적, 구체적인 방식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특히 사건을 제시하는 방식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전개되며, 간략하지만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고수하면서 기록된다. 공식어를 사용하며 일상어나 구어체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징, 비유, 알레고리와 같은 주관적, 간접적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명료하고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당연히 운문으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기술방식 및 언술방식을 보이는 것이 바로『삼국사기』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삼국유사』에 수록된 사료는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있고, 추상적인 사고 지평, 일상어 사용 및 시나 향가, 찬과 같은 운문 등, 문학적 언술방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르도 史, 설화, 시, 수수께끼담 등 다양하다. 이는 결국『삼국유사』는 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찬술했음을 반증한다.

문학적 사고방식이나 언술방식을 염두에 두고 '단군신화'를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추출될 것인가?

현재 학계에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를, 통상 '곰부족(곰을 숭배하는 부족, 혹은 곰은 땅신이나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환웅과 결합하게 된 정치집단)과, '호랑이 부족(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혹은 토템)'이라고 설정하고, '곰을 숭상하는 부족의 승리담'이라고 해서 '곰'과 '호랑이'를 실제 존재했던 민족이나 민족 명칭에서 찾고자 하며 이 학설이 현재는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특히 사학계에서는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도 '異民族(우리의 조상)의 도래설'처럼 실제의 사실로 치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실 도래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서에 해당된다. 즉 <단군신화>는 우리 고대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정말 '곰'과 '호랑이'는 곰부족과 호랑이부족에 관한 이야기일까?,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우리 역사상에 정말로 실존했던가? 실제로 '곰 숭배 부족 승리신화가 바로 우리의 단군신화인가?' 이렇

www.kci.go.kr

듯이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 부분이다. 이들을 실제 부족명이나 토템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곰 숭배 부족이 승리한 이야기'라면 우리나라에는 곰과 관련된 이야기담이 곳곳에 전승되고 있거나 널리 유포되었거나 '곰 숭배 사상'이 현재까지 존재하거나 아니면 내재해 있거나 편린이라도 많이 보여야하는데 현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기술된다고 볼 때, 곰 숭배사상이나 곰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패배자인 호랑이를 섬기거나 호랑이 담이 성행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및 현실은 '곰부족'이나 '호랑이부족'설을 수용하기 더욱 힘들게 한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볼 때 호랑이를 섬겼다는 기록(예맥족)은 보이지만 어디에도 곰신앙이나 곰을 섬겼다는 증거자료는 찾기 힘들다는 점도 위의 가설을 믿기 어렵게 한다. 곰신앙에 대한 증거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또한 궁색한 자료 찾기일 뿐이다. 민가에서건 구전을 통해서건 반드시 전달될 것은 대부분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인간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반면 호랑이는 많은 이야기담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민속에서 '신(산신)'이나 '산신의 사자'로 등장하며, 절이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배치되어 있는 '산신각'에도 항상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상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한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당대의 어떤 사건과 사실 등이 은유나 비유, 알레고리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단군신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또한 <단군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3] 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단군신화> 이야기담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기존 학설에서 주장하듯이 '환인→환웅→단군'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환

3)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동방학』13집(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5) 참조.

www.kci.go.kr

웅)와 어머니(웅녀)와 아들(단군)의 역사이고 이야기담이었다. 즉 <단군신화>는 '환웅-웅녀-단군'의 구조를 보이는 '단군 탄생 스토리'며, '가족사', 나아가서는 '민족사'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특히 '곰' 승리담은 실제 현존했던 '곰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곰'은 순전히 상징으로서, ①곰은 외형적으로 인간과 유사하다는 점, ②곰은 재생의 의미를 지니며, ③호랑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공포의 대상인 호랑이를 제압), ④지모신적 의미(봄이 되면 재생; 웅녀→유화→알영→용녀(고려 시조)와 연맥)를 지닌다는 등의 이유에서 채택된 보조관념, 즉 은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군신화>에서 동굴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실행의 장소였다.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쓰디 쓴' 쑥과 '아리고 매운'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는 장소이며, 곰이 사람이 되는 변신과정에서 금기를 실행하는 장소로서의 은신처였고, 결국 사람(웅녀)으로 변모되는 장소였다. 따라서 동굴은 격리와 단절의 수용처 또는 은신처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죽음과 재생이 공존하는 현장, 그리고 자궁(모태)를 상징하고 있었다.

'쑥'은 민가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장복하는 약초로서, 몸과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여성의 생생력을 증강시키는 기능을 하며, '마늘'은 남자의 생생력을 증강시켜주는 식품으로서, 쑥과 마늘만을 먹었다는 것은 남녀의 생생력에 도움을 주어서 인간 탄생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재했다. 더구나 단 것을 좋아하는 곰이 쓴 쑥이나 맵고도 아린 마늘을 먹어야 했다는 것은 결국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대목의 교훈은 결국 始祖母는 고행과 시련을 거친 덕성있는 여인으로서 始祖를 생산했음과, 또한 고조선의 건국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알레고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3자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셋을 한 묶음으로 해서 제시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 심리학적 의미, 민속적 의미, 철학적 의미, 수학적 의미 등이

www.kci.go.kr

모두 적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단군신화> 이야기 구조가 반영하는 교훈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단군'의 부친은 천신에 비견될 정도로 비범한 인물이다. 따라서 천신의 핏줄(할아버지, 아버지)을 이어받았다고 할 만큼 단군은 '고귀한 태생'으로 신성하고도 고귀한 인물이며, 단군 부계는 '비범한 가계'이다. 이는 한민족의 우수한 정통성과 단일민족임을 제시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2. 단군의 어머니 始祖母 또한 맹호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덕성과 은근, 끈기, 성실함을 갖춘 여인으로서 고난과 시련을 극기로 극복해 가는 인물의 알레고리이다. 따라서 단군(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모계 역시 비범하다. 단군은 이렇듯이 훌륭하고도 비범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한 비범한 인물인 것이다.

3. <단군신화>에서의 '동굴', '쑥'과 '마늘', '3' 등은 국가 건설에는 상당한 시련과 고통, 고난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함유하며, 생생력, 생명탄생 등의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었다.

4. 따라서 <단군신화>에는 ①국가 건설(고조선)의 어려움, ②선조들의 인내와 피나는 노력, ③민족적 자긍심과 지속적인 국토방위, ④신성한 단일민족 입증-단합요망, ⑤인내와 부단한 노력, ⑥평화가 국가건설 이념 등의 교훈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었다.[4]

고대의 이야기담(설화)이나 시가는 왜 이렇듯이 표면적으로는 신이하고 이상하며 황당무계한 내용을 지니게 되었을까? 왜 그러한 구조나 내용으로 전개되거나 형성되었던 것일까? 만약 우리가 고대에 살았다면 당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전달하게 되었을까?

문자가 없으니 기록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우(=구전)는 복잡한 구조나 직설적 이야기, 教訓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전달되지 않으며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www.kci.go.kr

4)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집(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2005), PP. 9-11Passim.

못하는 내용이나 너무나 당연하고도 직접적인 교훈을 주입시키려는 이야기에는 흥미나 관심도 없거니와 기억도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지도 없다. 혹 전달한다고 해도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유통된다. 반면 전달하려는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있는 주제일 경우는 오래도록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한다. 특히 그 이야기가 황당하거 나 신이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식적인 사실을 상기한다면 고대의 이야기담이나 시가가 왜 그렇게도 신이하고 이상하며 황당무계한 내용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당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또한 중요한 교훈 등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당대에 이를 기록할 수단이 없다는 상황을 추정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며 이해가 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이하거나 신이하거나 황당한, 즉 文學的 糖衣를 입혀서 기억하기 쉽고 전파되기 쉽게 구성해서 인구에 널리 회자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고대의 이야기담이나 시가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은유나 상징, 알레고리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이 표면적으로 문학적 당의가 입혀졌다고 해서 사건이 지니고 있는 본 의미나 목적 등이 왜곡되거나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역사)”와같은 직접적 언술로 표현할 수도, “그대는 한 떨기 장미꽃입니다”, “별과 같은 당신의 눈빛 때문에 빨려들어가는 듯 합니다.(문학)” 등의 간접적인 언술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들 문장은 表面的 意味(surface structure)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裏面的 意味(deep structure)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환원된다. 이 때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문장은 ‘문학적 언술’에 해당되며,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역사적 언술방식’에 해당된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표면적으로 황당하거나 신이한 이야기 구조를 보인다고 해서 내재한 의미나 교훈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는 할 수

www.kci.go.kr

없다. 주목할 점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술보다는 비유를 즐겨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나 비논리적인 인물, 사건 등으로 구성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어떤 중요한 교훈과 가치를 담고 대대로 전달되는 이야기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일연은 이렇듯이 황당한 이야기 속에 내재한 진실과 사실, 교훈 등을 간파하고 인정하고 납득했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료로서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구조는 이러한 방식과 사관을 가지고 이해할 때 보다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단군신화> 외에 그 다음 이어지는 '始祖들이 알이나 바가지에서 탄생한다'는 이야기담도, '모친이 용이나 지렁이(地龍, 池龍), 거북이 등 이물과 교접하여 낳았다'라는 이야기담도 결국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학적인 화법이나 표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계와 부계의 신성성과 고귀함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그 자손은 특별하며 신성한 존재라는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문학적인 糖衣를 입힌 경우라고 본다. 이 때 '알이나 바가지'는 임신한 부인(원관념)을 비유한 보조관념이며, '용이나 지렁이, 거북' 등은 남근 상징으로서 훌륭한 남자를 의미한다(중국 시조나 성인이 용과의 교접으로 인해 탄생되었다거나 무왕이 어머니가 못가의 池龍과의 사이에서 탄생했다는 것 등도 모두 그러하다). 인류 형성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현대와는 아주 다른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고 해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 이를테면 알이나 바가지에서 인간이 태어난다거나, 곰이 인간이 된다거나, 母系나 父系가 인간이 아닌 다른 異物이라든가 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흥법>편 이하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종교와 관련된 이적

5)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P. 10 참조.

www.kci.go.kr

이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불교의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을 때 야기되는 신이적 증표나 효율성 등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는 해도 바다를 지나는데 '용'이 나타나서 '용궁에서 경전을 읽어 주었다'(앞에서 제시한 <寶壤梨木>)등은 사실로 수용하기 힘들다. 어떤 신(신성)이라고 해도 인간세계의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독교의 "홍해의 기적"도 인간세상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즉 인간세상의 자연법칙이 파괴된 경우는 아닌 것이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현상'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이다. 단지 하필이면 그 때 그 순간에 야기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기에 '기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西海 가운데에 나타난 '용'도 어떤 것의 상징적 산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표현방식은 수용자들의 주위를 끌기 위함이며 '주제 및 본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내재된 목적이라는 의미이다.[6] 이 이야기담은 <處容郎과 望海寺>(紀異 二) 이야기와도 거의 유사하다. "헌강왕이 開雲浦에 놀다가 구름과 안개를 만나 길을 잃었는데 '동해 용의 조화'라는 말을 듣고 관원에게 '龍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지으라'는 명을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동해 용왕이 기뻐해서 아들인 처용을 헌강대왕한테 보내어 왕을 돕게 했다"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결국 "절을 짓게 되었다"는 주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 <보양이목>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보이지만 주제는, "절을 짓다"와 "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가 이 절을 후원했다", "보양을 돕는 힘(이목)" 존재했다 등이다. 璃目은 '이무기'와 음과 유사하다는 점(천사는 璃目을 梨目으로 알고 배나무에 벼락을 침)에서 용(절대자

6) 성경의 <창세기>도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교훈이나 사실만이 진실하며, 주제에 해당된다. 인간 창조에 진흙을 사용했는지, 말씀으로 창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진실과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상징, 후일 왕건에 해당될 수도)의 아류이며 용보다는 적은 힘을 지닌 대상의 상징화일 것이다.

이 외에 운문으로 형상화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도 제시된 부대설화의 내용과 연계해서 상호유기적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하며, 운문에 내재한 비유나 알레고리, 상징 등을 파악해야 제대로 해호할 수 있다. 따라서『삼국유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향가나 찬 등은 모두 바로 앞에서 제시된 배경설화 등 서사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향가>의 경우 앞에서 제시된 배경 설화 등은 도외시 한 채, 향가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 국문학자들도 일부 있는데, 이는『삼국유사』에서의 향가가 어떤 의미에서 수록된 것인지를 간과한 경우이다. 즉 일연의 편찬의도 및 전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피겠지만 향가나 찬시 등은 앞의 서술내용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이를테면 향가인 <獻花歌>를 보자

딛배 바회 ᄀᆞᆺ히
자ᄇᆞ은손 암쇼 노히시고
나ᄒᆞᆯ 안디 붓ᄒᆞ리샤ᄃᆞᆫ
곶ᄒᆞᆯ 것가 받ᄌᆞᄫᆞ리이다

만약 배경설화인 서사담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 시 텍스트 해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이 <헌화가>는 다음과 같은 배경설화인 서사담이 제시된 후에 수록된다. 어떤 일련의 이야기나 사건이 제시된 후에 향가가 첨부되는 것이다. 이는『삼국유사』전체가 모두 동일하다. 찬시도 동요도, 銘도 노래도 마찬가지이다.

聖德王(702～737)때에 純貞公이 江陵(지금의 溟州)太守로 부임해가는 도중이었다. 가다가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옆에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절벽이 바다에 맞닿았는데 높이가 천길이나 되었으며, 그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水路는 그 꽃을 보고 옆사람들에게 "저 꽃을

www.kci.go.kr

꺾어다 줄 사람 누구입니까?" 하니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사람이 발 붙일 곳이 못 됩니다." 하고 난색을 표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 마침 한 老人이 암소를 끌고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철쭉꽃을 꺾어 가지고 와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바쳤으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水路夫人>

위의 내용을 보면 제시된 일련의 사건은 일행들이 길을 가는 도중 현재 강릉 근처 어느 바닷가에서 일어난다. 강릉의 태수로 부임해 가던 순정공의 부인 '水路'가 이 텍스트의 주인공이다. 수로부인은 천길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철쭉꽃을 굳이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무 위험한 장소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 때, 한 손에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자신이 꽃을 꺾어다 주면 안 되냐며,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 이 노래가 바로 <헌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 내용을 감지할 때 비로소 <헌화가> 텍스트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렇듯이 『삼국유사』에 수록된 모든 이야기와 첨부되고 있는 시가류는 상호유기적인 상관관계로서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동일한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

서사담을 파악하면 <헌화가>는 어느 노옹이 부른 노래이며,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면서 불렀다는 것 등의 정보가 주어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의문은 꼬리를 문다. 노인의 정체는? 젊은 시종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낭떠러지를 어떻게 올라가서 꺾었을까? 손에는 왜 소를 끌고 있었을까? 물론 노옹의 정체를 그 동네의 농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로 본다고 해도 의문은 여전하다. 동네 지리에 밝고, 또 일하러 가는 농부라 소를 끌고 있다손 치더라도, 한낱 농부의 신분으로서 시종들을 헤치고 태수의 부인한테 말을 걸고 또 노래까지 지어 바친다는 것이. 또한 부인의 일련의 행동과 말도 상식을 초월한다. 남편의 부임지를 향해 가던 중에 그것도 위험한 장소에 있는 꽃을 굳이 따달라고 한다는 점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로부인은 서너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무분별한 아낙네도 아니다. 그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당대의 상층의 부녀자였다. 그녀는 어째서 이렇듯이

www.kci.go.kr

무모한 命을 내린 것일까? 남편인 순정공의 태도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째서 아내의 이 무모한 請에 대해 묵묵히 관망만 했었을까? 이런 모든 점에서 볼 때, 이 텍스트는 단순한 표면적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모든 내용을 상징적 의미로 환원시킴이 마땅하다.[7]

이렇듯이 <삼국유사> 소재 내용들은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의미들만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 해석해 보았던 것처럼 중층적인 의미나 상징성 등을 고구해야지만 어떤 교훈이나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짧고 단순한 의미라고 해도 심층적으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기이한 내용'과 '문학적 언술방식'은 동전의 앞뒤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일연의『삼국유사』저술 의도 및 목적은 당대에 구전되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는 '신이한 이야기가 진실 및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연은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 문학적 글쓰기 방식의 핵심이나 전략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연의 마인드 자체가 문학적 코드를 지향했으며, 거시적 관점을 지녔다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2. 운문 방식

『삼국유사』의 또 다른 문학적 언술방식 중 하나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讚詩나 鄕歌, 童謠, 呪術謠와 같은 '詩歌', 즉 韻文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시가'의 특징은 상징과 비유, 압축 등 추상적이고도 간접적, 주관적 표출방식을 지닌다. 이는 객관적, 직접적, 구체적인 진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즉 史的 문체와는 상이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운

www.kci.go.kr

7) 강명혜, "江原道 民俗信仰의 特性과 起源 및 文學作品과의 관련성", 강원문화연구 제19집(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0)

문 형태는『삼국유사』텍스트 전체에서 족적이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노래나 시와 같은 운문은 신라 弩禮王(紀異 一) 때 처음 제시되고 있다. “이때 비로소 兜率歌를 지었으니 嗟辭와 詞腦格이 있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솔가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운문 형태가 처음 제시되고 있는 곳은 <桃花女와 鼻荊郎>(紀異 一)條에서이다. 비형랑의 신이하고도 기이한 탄생담과 신이한 행적 등을 제시한 후 “당시 사람들이 글을 지어 말하였다”라는 언급 하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이어진다. 노래 말미에는 “鄕俗에 이 글을 써붙여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고 있다. 부적의 기능을 하는 呪術謠이다.

聖帝魂生子　聖帝의 魂이 아들을 낳았으니
鼻荊郎室亭　鼻荊郎의 집이 바로 그곳일세
飛馳諸鬼衆　날고 뛰는 모든 귀신의 무리
此處莫留停　이곳에는 아예 머물지 말라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에 태어난 비형랑은 기이한 인물이다. 이미 평범하지 않은 탄생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죽은 자와 산 자의 결합에서 태어난 신이한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비형랑은 죽은 자의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비형랑 자체가 陰界에 속하는 인물이다. 또한 하룻밤 사이에 귀신을 시켜 다리를 놓게 하는 등 신이한 이적을 행하면서 귀신을 다루는 인물로 묘사된다. 비형랑은 우리나라 귀신의 시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깨비담의 원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형랑의 약력 및 신이한 능력을 단지 4행에다가 담고 있다. 간결하고도 간명한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행간에는 사건의 始終을 함축하고 있다. 설명이 누누이 필요없이 간명하고 간결하며 경제적이다. 이러한 점은 ‘시가’라는 장르가 함축하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듯이 ‘노래’의 형태로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대로 史書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그런가 하면 <天賜玉帶>(紀異 一)조에서는 고려왕이 신라를 공격할 계획을 중지하고 讚했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雲外天頒玉帶圍　구름 밖에 하늘이 주신 긴 옥대는
辟雍龍袞雅相宜　임금의 곤룡포에 알맞게 둘러있네
吾君自此身彌重　우리 임금 이제부터 몸 더욱 무거우니
准凝明朝鐵作堲　이 다음날엔 쇠로 섬돌을 만들 것이네

신라 진평대왕이 풍채가 좋아서 그 무게로 섬돌이 무너졌다는 것과, 하늘의 천사가 왕에게 옥대를 바쳤다는 신이한 이야기이다. 고려왕이, 신라를 치려할 때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서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이냐"고 좌우에 묻는다. 그러자 "황룡사의 丈六尊像과 그 절에 있는 九層塔, 그리고 진평왕의 天謝玉帶가 그것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신라를 공격할 계획을 중지했다. 따라서 위와 같이 讚詩를 노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임금의 몸무게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하늘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이렇듯이 짧은 '노래'는 어떤 상황의 핵심을 널리 전파한다는 기능을 한다.

그 외에도『삼국유사』에는 <太平歌>도 제시되고 있고, 향가도 제시되며, 동요도, 銘, 찬시도 말미에 첨부된다. 동요는 <後百濟의 甄萱>조(紀異 二)에, 銘은 <駕洛國記>(紀異 二)에 등장한다. 최초의 향가는『紀異 二』<孝昭王代의 竹旨郎>條에 처음 나타나는데, 得烏谷이 竹曼郎을 사모해서 불렀다는 향가이다.

향가도 설화나 이야기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제시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를테면『삼국유사』卷五, 感通篇 <月明師 兜率歌>條를 보면, 月明의 신이한 이적이나 신이한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월명은 우선 하늘의 해가 둘이 되어 나타나자 왕의 청으로 향가를 불러서 평정한다. 이러한 월명의 치적에 미륵보살도 현현한다. 월명은 사천왕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한다. 그가 달밤에 피리를 불며 거리를 가면 하늘 중천에 떠있는 달조차 거의 홀리다시피 해서 한 자리에

www.kci.go.kr

멈추어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 문면은 단순히 시적 과장법에 그치지 않는다. 월명의 피리소리에 달이 멈추어 있었다는 연유로 인해 거리 이름을 '월명리'로 불리게 되었음을 상기할 때, 월명스님은 피리의 달인이라는 정보와 함께 거의 神技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서도 향가를 지어 제사도 지냈다. 제사를 마치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紙錢을 서쪽으로 날려버렸다고 한다. 이때 부른 향가가 그 유명한 <祭亡妹歌>이다.

생사로(生死路)ᄂᆞᆫ
예 이샤매 저히고
나ᄂᆞᆫ 가ᄂᆞ다 말ㅅ도
몯다 닏고 가ᄂᆞ닛니
어느 ᄀᆞᄉᆞᆯ 이른 ᄇᆞᄅᆞ매
이에 저에 ᄠᅥ딜 닙다이
ᄒᆞ돈 가재 나고
가논곧 모ᄃᆞ온뎌
아으 彌陀刹애 맛보올내
道닷가 기드리고다

시적 화자인 月明은 죽은 누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 및 願意 등을 서술하고 있다. 누이는 왜 세상을 떠났을까?, 왜 오라비한테 '간다'는 말도 못한 채 갑자기 갔을까?, 병이 걸린 것일까? 아님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지 「제망매가」는 누이를 사랑하는 오라비의 마음이 절절이 감지되는 시 텍스트이다.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오라비의 마음이 독자의 가슴에 절실히 와 닿는다. 미래를 기약하면서 안위하는 모습에서도, 哀調를 띤 어조에서도 그 마음은 감지된다. 남매간의 사랑과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아키타입, 즉 원형 상징담에 해당된다. 오래된 민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서사담을 기억해 보면 이들의 등가성을 알 수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사실은 '월명'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제시된다. '月+日'로 이루어진 것이 明이기 때문이다. 월명이란 이름

www.kci.go.kr

은 '오라비+누이'를 표상하는 것이다.[8] 이렇듯이 짧은 노래 속에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 시 텍스트의 배경과 연계한다면 비록 간단하고 짧지만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인 일연이 지은 운문인 讚詩는 <興法>편부터 시작된다. 일연은 이 讚詩를 통해 앞에서 제시된 서사적 내용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서정적 자아를 표출시키기도 한다. 일연의 찬시는『삼국유사』텍스트에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鴨淥春心渚草鮮　압록강에 봄 깊어 물풀은 곱고
白沙鷗鷺等閑眠　백사장 갈매기는 한가로이 조네
忽驚柔櫓一聲遠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노젓는 소리에 놀라니
何處魚舟客到烟　어느 곳 漁船인지 손이 벌써 당도했네

『삼국유사』卷三, 興法, <順道肇麗>

이 찬시는 고구려에서 佛法이 일어난 시초를 상고하면 지은 것이다. 따라서 찬시에 등장하는 압록강은 '고구려'를 상징한다. '백사장 갈매기가 한가로이 존다'는 것은 평화롭고도 안정된 고구려 사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고구려에 갑자기 멀리서 불교가 전해진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벌써 전파자는 당도했다. 이 때의 손님(客)은 가도와 순도이다. 이 작품 텍스트 자체를 보면 시적화자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노래한 서정시로 환원된다. 그러나 앞에서 불교가 이입되는 과정을 기술한 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텍스트는 배경이 되는 컨텍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수월하게 그 의미가 해석된다. 시 작품의 정보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인 것이다. 이 찬시는 항간에 떠도는 노래를 수록한 <기이>편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일연이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수록하고 그 내용에 부합되게 손수 창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매번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서사담에 맞추어서 시로 응축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8) 강명혜,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온지논총」16집(2007) P. 135.

www.kci.go.kr

점에서도 일연이 보유하고 있는 문학적인 마인드 및 능력은 상당히 대단하다.

앞에서 언급한 이차돈의 순교를 다룬 <原宗興法과 猒髑滅身>편에서도 일연은 일련의 사건을 제시한 후 자신의 찬시를 첨부한다.

徇義輕生已足驚　의에 죽고 생을 버림도 놀라운 일인데
天花白乳更多情　天花와 흰 젖의 異蹟 더욱 깊이 느껴지네
俄然一鉤身亡後　이윽고 한칼에 몸을 비롯 죽었지만
院院鐘聲動帝京　집마다 울리는 종소리는 서울을 뒤흔드네.

앞에서 제시한 서사담을 잘 압축하고 응축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적 화자의 서정적 감정도 개입된다. "天花와 흰 젖의 異蹟 더욱 깊이 느껴지네"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시적 화자인 일연은 이 신이로운 사건을 통해 자신은 異蹟을 깊히 느꼈다고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찬시를 읽는 독자들은 '이차돈 사건의 진위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부대효과를 경험한다. 이렇듯이 사건과 찬시는 상호텍스트의 유기적 관련성을 보이며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塔像> 第四, <皇龍寺 九層塔>에는 자장법사가 문수보살과 神人(아마도 龍王에 해당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신인이 말하길 "황룡사의 護法龍은 바로 나의 큰 아들이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의 도움과 정보를 얻어 구층탑을 짓게 되는 건축 과정 및 구층탑의 영험성, 구층탑을 지은 후의 과정 등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신이하고도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 특히 백제 공장이가 小匠 200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절의 기둥을 세우던 날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본다. 공장이는 의심이 나서 일을 멈추니 갑자기 찬지가 진동하며 어두어지고 노승과 장사 한사람이 金殿門절에서 나와 그 기둥을 세우고는 문득 사라진다. 이에 공장이는 일을 멈춘 것을 후회하고 그 탑을 환성시켰다고 한다. 또한 못에 있는 龍의 청을 받아서 사리 등을 배치했다고 한다. 역시 찬시가 첨부된다.

www.kci.go.kr

鬼拱神扶壓帝京　신령이 받치는 듯 서울을 누르고
輝煌金碧動飛甍　휘황한 금벽은 용마루를 날리는구나
登臨何啻九韓伏　이에 올라 어찌 구한만의 항복을 보랴
始覺乾坤特地平　비로소 천지가 특별히 평화로움을 깨닫겠네.

찬시는 앞에서 언급한 서사담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령이 받치는 듯 서울을 누르고"는 작가=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며 느낌이다. 객관적 사실과 시적 화자의 개인적이고도 서정적인 느낌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기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야기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황룡사 구층탑은 지금 기단만 남아 있고 실제 모습을 알 길이 없다. 다만 일연이 '황룡사 구층탑' 조에 적은 기록과 경주 남산의 마애불 조상 곁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어림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이 시의 1, 2행은 구층탑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연은 불국토 사상과 호국 사상을 긴밀히 연관시키면서도 찬시를 통해 불교의 궁극적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이념이 시로 바뀌는 모습이다."[9]고 표현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실에 주관적 표현이 가미되어 더욱 생생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삼국유사』 텍스트에는 讚詩와 鄕歌가 함께 수반되어 제시되기도 한다. 『삼국유사』 卷 第三, 塔像 第四,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를 보면, 눈을 잃은 희명의 아이가 천수관음한테 빌어서 눈을 뜬 신이한 이야기가 전개된 후 운문이 두 개나 제시되는데, 하나는 향가의 형태를, 다른 하나는 讚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찬시는 일연이 지은 것이다.

경덕왕 대에 漢岐里에 사는 希明의 아이가 난 지 5년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날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芬皇寺 左殿 북쪽 벽에 그린 千手觀音 앞에 나가서 아이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게 했더니 눈이 드디어 떠졌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9) 고운기, "삼국유사의 讚詩와 그 體裁上 역할에 대하여", 『삼국유사연구』(일연학연구원, 2005), PP. 290-291 Passim.

www.kci.go.kr

무릎을 세우고 두 손바닥 모아
千手觀音 앞에 비옵나이다
一千 손과 一千 눈 하나를 내어 하나를 덜기를
둘 다 없는 이몸이오니 하나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아아! 나에게 주시오면, 그 慈悲 얼마나 클 것인가

讚해 말한다.

竹馬 葱笙의 벗 거리에 놀더니
하루아침에 두 눈 먼 사람되었네.
大士가 자비로운 눈을 돌리지 않았다면
몇 社春이나 버들꽃 못 보고 지냈을까

앞에서 제시된 향가는 자신의 서정적 감정 및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希明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서사담 내용을 보면 희명이 아이를 시켜서 노래를 지어 빌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난 지 5년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고", "어느 날"이라고 했으니 그 아이는 5-7살 정도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아이의 엄마인 희명이 지어서 아이한테 부르게 했을 것이라는 설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아무튼 이 향가 텍스트에는 간절한 아이 자신의 기원이 드러나 있다. 기도하는 상태와 그 마음, 애절함 등이 절절히 묻어난다. 완전히 주관적이다. 따라서 서정적 자아와 세계 즉, 천수관음과 아이의 관계만 부각된다. 그러나 세계를 보는 시각과 의지는 어디까지나 시적 자아인 아이의 것이다.

일연은 이 노래 다음에도 자신의 찬시를 첨부한다. 그의 찬시는 앞에서 제시된 향가와는 자못 변별된다. 주관적이며 서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눈을 멀게 되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가 모두 제시된다. 그러면서 4연에서는 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도 부연시키고 있다. 만약 '천수관음의 자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측'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찬시에 의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아이의 상황 및 처지와

www.kci.go.kr

관음보살의 신이한 기적이 수반하는 엄청난 효과를 더 빨리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찬시는 이를 돕는 기능을 한다. 결국 찬시는 포교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살피다보니 일연이 찬시를『삼국유사』와 같은 史書에서 굳이 시도한 이유가 감지된다. 일연이 찬시를 부연시킨 것은 단순히 분출하는 서정적인 자아의 표출이나, 시심이나, 종교심의 발로에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상의 어떤 전략이 느껴진다. 일연은 찬시가 지니는 가치 및 효용성을 이용해서 찬시의 앞 부분에서 제시되는 서사담이나 사건, 이적 등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강조시키고 널리 전파시키고자 의도했던 듯하다. 즉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능(문학적 효용성)이 상당히 효과적임을 인식해서 이를 포교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했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했듯이 일련의 사건이나 讚詩는 상호텍스트의 유기적 관련성을 보이며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일연은 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糖衣說(명칭은 몰랐겠지만)의 장점을 상당히 효용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문학적 언술방식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삼국유사』이다. 즉, 史料를 설화나 시, 수수께끼 등의 문학적 장르에 의존해서 효율적으로 독자들에게(후손) 전달하고자 의도했던 수준 높은 史書가 바로『삼국유사』의 실체인 것이다. 또한 역으로 이런 인지능력과 문학적 마인드를 지녔기에 비유나 알레고리 등으로 간접화된 기록물이나 구비물의 원관념이나 원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사료로 인정, 수록, 편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연의 이러한 문학적 마인드 및 특성은 일연만이 지니는 독특한 기법 및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까? 물론 일연이 보유하고 있는 마인드 및 열린 사고, 폭넓고 깊은 지성, 그리고 승화된 사고력 등은 일연 개인의 특성이겠지만 사회적 특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의 사회적 모랄이나 집단적 사고, 지향성, 지배적 사상에서 개인은 완전히 자

www.kci.go.kr

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연 생존 당시의 고려는 어떤 사회였을까?

사실 고려사회는 조선조의 白瓷같은 담백함을 지향하기 보다는 靑瓷와 같은 화려함과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문화가 발달했으며, 유교보다는 불교와 민속종교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문학적 표현이 발달해서 고려속요와 같은 중층적 의미를 함유한 작품도 만연했다. 이를테면, 현재 학계에서 민요라고 결론내리고 있는 '서경별곡과 같은 속요'들은 실은 종묘제례악과 같은 의례악의 가사로서 고려시대 궁중악장에 해당된다. 『高麗史』 성종조 19년 기록에 보면, "임금께서 宗廟의 別祭를 의식대로 몸소 행하시고 傳敎하시기를 '종묘의 음악 중에서 <保太平>, <定大業> 같은 것은 좋으나, 그 이외의 속악으로서 <西京別曲> 같은 것은 男女相悅之詞라서 심히 좋지 못하니, 악보는 갑자기 고칠 수 없다고 해도 곡조에 맞쳐 가사를 따로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조에 묻도록 하여라'고 하였다-傳曰 宗廟樂 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 其餘俗樂 如西京別曲 男女相列之詞 甚不可 樂譜則 不可卒改 衣曲調別制 詞何如"[10](밑줄 필자)라고 되어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이렇듯이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의례악의 가사들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남여상열지사'에 속한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려속요를 민요로 보며, 작자를 하녀나 궁녀 등 천민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노래의 이면적, 심층적 의미를 고구해 보면 '풍요의 노래'거나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노래'거나 '송축, 연군의 노래'로 환원된다.[11] 또한 그 음들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조를 거쳐 아직도 종묘제례악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속요>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의미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렇듯이 고려시대의 문학적 표현방식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있

10) 『成宗實錄』 卷215, 19년 4월.

11) 필자는 고려속요가 궁중의례악의 가사로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어서 중층의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를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발표한 바가 있음. 발표 논문들을 모아서 『고려속요와 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북스힐, 2002)로 출간(강명혜).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조류에 힘입어 일연의 문학적 마인드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즉 일연의 문학적 마인드는 일연 개인만의 독특한 취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한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좀더 천착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삼국유사』라는 제목은 당대의 역사서였던 『三國史記』를 의식하고 붙여진 제목이다. 꼭 필요한 역사적 사료인데 『삼국사기』에서 누락시키거나 챙기지 못한 사료를 문학적 언술방식이나 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편찬한 역사서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담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면적인 의미나 교훈, 상징 등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즉 표면적인 문면이 제시하는 층위에서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이고도 이면적인 내용 및 상징성을 고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며, 기대할 만하다.

Ⅲ. 결 언

본고는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기술방식을 통해서 삼국유사의 특성을 고구하고자 했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국가와 종교에 관한 사건이나 사실을 편찬해 놓은 것들로서 일연은 당대에 전해지던 설화나 신이한 이야기담 속에 내재된 진실과 실제적 사실을 간파했기에 이를 역사로 인지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연의 지성 및 인지는 삼국유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 및 기표로 작용하게 된다. 이 잣대 및 기표는 바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작성하는 언표로서 모든 주제를 여기에 준거한 언술방식에 의해 기록하게 된다. 이 언술방식은 바로 "문학적 문체, 문학적

www.kci.go.kr

글쓰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넓게 지칭하면 "문학 당의(모든 문학적 장치)"가 모두 해당된다.

『삼국유사』의 문학적 글쓰기는 ① 은유, 알레고리, 상징 등, 비유적 방식, ② 讚詩, 鄕歌 등 운문 방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문학적 마인드에 의해 일연은 당대의 설화를 역사적 사료로 보았으며, 역으로 알레고리나 비유, 은유 등 문학적 장치를 이용해서 역사적 사료나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었고, 사건의 효과적인 전달, 전파를 위해서 문학 장르인 '찬(시)'을 시도하거나 사건이나 사실의 기록 말미에는 시나 향가, 찬 등을 수록하고 있는 등 문학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즉 일연은 역사적 사료를 모든 문학적 언술방식을 이용해서 제시했으며, 문학 장르의 하나인 설화, 시, 수수께끼(지기삼사, 사금갑 등), 기록문 등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일연이 운문을 제시한 이유는 운문이 지니는 가치나 효용성 등을 인지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건이나 사실의 기록 말미에 자신이 지은 찬시를 부연시킨 것은 단순히 분출하는 서정적인 자아의 표출이나, 시심이나, 종교심의 발로만은 아니며, 그 이상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서사담이나 사건, 이적 등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강조시키고 널리 전파시키고자 하는데, 즉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문학 효용성)이 상당히 효과적임을 인식해서 이를 포교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일연은 역사적 사료를 문학적 언술방식을 이용해서 제시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연은 한편으로는, 『삼국유사』에 수록되고 있는 이야기의 실제적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문학적 언술방식인 간접표현법, 즉 '비유나 상징, 알레고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진실된 사실(역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즉, 심층적 구조(deep structure)에서의 교훈이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www.kci.go.kr

전체의 화법(글쓰기 기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은, 일연은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고, 문학적 전략 및 특성을 취하며, 문학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 널리 퍼져있던 신이한 이야기담을 역사적 사료로 인정해서 이를 수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연의 문학적 마인드는 일연 개인만의 독특한 취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한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왜냐하면 일연이 살았던 고려시대의 문학적 표현방식은 이미 그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조류에 힘입어 일연의 문학적 마인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점은 좀더 천착해야할 문제이다. 결국 『삼국유사』라는 제목은 당대의 역사서였던 『三國史記』를 의식하고 붙여진 것으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누락시키거나 챙기지 못했지만 당시 널리 알려진 신이한 이야기(糖衣를 입은)가 역사적 사료임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 편찬해 놓거나, 우리나라 역사상 반드시 필요한 史料를 간접 화법이나 문학적 당의를 입혀서 제시해 놓은 엄밀한 역사서'라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접수일 : 2011.04.08 / 심사일 : 2011.05.07 / 게재확정일 : 2011.05.21

www.kci.go.kr

<참고 문헌>

『삼국유사』, 『고려사』
강명혜, “江原道 民俗信仰의 特性과 起源 및 文學作品과의 관련성”, 강원문화연구 제1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0.
강명혜,『고려속요 . 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 2002.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집,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5.
강명혜,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온지논총 25집, 사단법인 온지학회, 2010.
고운기,『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1· 2, 현암사, 2002.
고운기, “삼국유사의 讚詩와 그 體裁上 역할에 대하여”,『삼국유사연구』, 일연학연구원, 2005
권희경,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려적 시각”, 서지학연구, 2000.
김두진,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논총 23, 2000.
김두진, “일연의 생애와 사상” 전북사학 19, 2002.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한국사연구』20, 1978.
김열규, 신동욱편,『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재와 성격” 동국대학논문집 11, 1974.
김태영,『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976.
김택규, “삼국유사의 사회, 민족지적 가치‘,『삼국유사연구론선집』1, 백산자료원, 1986.
김헌선,『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징”,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2007.
민족문화연구소편,『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출판부, 1983.
박진태,『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0.
박진태 외,『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학풍 2권 1/2호(『손진태선생전집』6, 태학사, 1949.

www.kci.go.kr

신라문화선양회 편,『삼국유사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1991.
심종원,『삼국유사 새로읽기(1); 기이편』, 일지사, 2004.
안계현, “일연”,『한국의 사상가 十二人』, 현암사, 1975.
안외순, “『삼국유사』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예철해,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24, 2007.
윤천근, “일연의 불교문화 사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 47호, 2008.
이강래, “한국고대사를 위한 삼국유사의 독법”, 삼국유사연구회, 2005.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 1973.
이남영, “삼국유사와 승 일연과의 관계 고찰”, 철학연구 2, 서울대, 1973.
이도흠, “삼국유사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국학논집 2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이범교 역해,『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 민족사, 2005.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 정북사학 8, 전북대 사학회, 1984.
이재호,『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출판부, 1983.
정구복,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초”보고 논총 8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정대구, “삼국유사와 중/일 불교전구문학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정병삼, “신라불교사상사와『삼국유사』의해편”, 불교학연구 16, 2006.
정출헌,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세계관에 대한 고찰”『어문논집』28, 안암어문학회.
조동일,『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조동일,『삼국유사의 신연구』, 신라문화선양회, 1980.
중앙승가대학편,『일연과 삼국유사』 1-17권, 민족문화출판사, 1992.
지준모,『삼국유사의 어문학적 연구』, 이회, 2005.
채상식,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한국문화연구』 창간호, 1988.
하정룡, 이근직,『산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1997.

www.kci.go.kr

하정룡, 『삼국사기 사료비판』, 민족사, 2005.
하정현,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신이’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하현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관” 『독서생활』 6월호. 삼성출판사, 19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조은문화사, 1987.
한종만, 『일연의 중편조동오위 연구』, 한국불교학 23, 1997.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 이화문화사, 2008.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9.
G.L.Gomme, Standard of Dictionary, Folklore, Mythoiogy and Legend, Funk and Wagnalls Company, New York, 1950.

www.kci.go.kr

Abstract

The Discourse method of 『Samguk Yusa』 / Kang, Myung Hye

The manuscript is premised that a certain sense of purpose and ideology will be existed where Ilyon compiled Samguk Yusa which will be clarified by the text and characteristics of Samguk Yusa will be researched by discourse and narrative style.

Like this above, Ilyon saw through the truth, fact and lesson from the absurd story which he recognized and understood. Hence this could be used for the historical documents. Moreover, he tried Chan poem as a literature genre and the poem or Hyanga, old Korean folk songs, Chan as praise will be included at the end of incidents. In other words, Ilyon provided the historical documents via all kinds of literature discourse methods which are expressed by fable, poem, riddles (Jigisamsa, Sageumgab etc), and record letter so on.

The reason why Ilyon presented that he recognized the value and efficiency of the verse. Based on this mentioned above, Ilyon had efficiently utilized the merits of Danguisung (syrup- capsule theory) with literature mind. Finally, Samguk Yusa is sublimated in history by cultural discourse style. Ilyon understood the gist of literature written style, intended a cultural code and had a macroscopic viewpoint. Even though Ilyon has characteristics, this is not limited to Ilyon as presuming the cultural mind might be influenced from expression style of Goryeo literature and the historical backdrop.

After all, the title of Samguk Yusa is attached by being aware the Samguk Sagi which is the history book in that period. The omitted stories of Samguk Sagi and essential histories are presented in Samguk Yusa by indirect narration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Key words: literature discourse, manuscript, verse, historical documents, cultural code.

www.kci.go.kr